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 사무엘하 1:1-16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은혜의 찬양 245장)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 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2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송가 310장)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 읽기 사무엘하 1:1-16

- 1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처죽하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들을 머물더니
- 2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매
- 3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 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 5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 6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 7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 8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 9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 10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 11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 12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역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 13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 14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 15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 16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본문 배경

사무엘하 1장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직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은 이 소식을 한 아말렉 청년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쓰러져 있던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는 이 소식이 다윗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는 당시 사람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담긴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왕이었기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오랜 시간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으며, 다윗은 그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사건이나 성공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한 판단과 보복을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용서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임을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잘못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그 상처를 즉시 갚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관찰

1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6-10절)

답 사울이 스스로 죽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전하면서 마치 자신이 다윗에게 공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계산이 앞선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과 유익으로 판단할 때 얼마나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2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나요?(14-16절)

답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으므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해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기회이자 기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사울을 개인적인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해 아말렉 청년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감정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적용

1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요?

2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7-1 여호와께서 그왕에게

시편 18편 50절



♩ = 128

작곡 김남원



5 **A** C G/B Gm/Bb F/A Dm7 G7
 여호와께서 그왕에게 - 큰 구원을 - 주시며 -

9 C G/B Gm/Bb F/A Dm7 G7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 인자를 - 베푸심 이여 -

13 **B** F C/E Dm7 G7
 영원토록 다윗과 - 그 후손에게 - 토 - 다 -

17 F C/E Dm7 G7 C
 시편 십팔편 - 오십절 말 - 씀 아 멘

가정에배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